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연합하면 승리하고 흠어지면 패배한다 [사사기 8:1-21]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이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2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3 하나님은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엍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4 기드온과 그 좃은 자 삼백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5 그가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6 숙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관대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7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짚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8 거기서 브누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9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10 이 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십 이만명이 죽었고 그 남은 일만 오천명 가량은 그들을 좃아 거기 있더라 11 적군이 अन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욱브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12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13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14 숙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하매 숙곳 방백과 장로 칠십 칠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15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관대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16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짚레로 숙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18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나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19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20 그 장자 여텔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 함이었더라 21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한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뎀던 새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세상이 캐드버리(크라이스트처치)라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러한 꿈은 훌륭하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사사기 6장: 뒷마당에서 바알과의 전투, 사사기 7장: 미디안과의 전투, 사사기 8장: 기드온의 백성에 대한 조롱과 비판에 맞서는 전투. 사탄은 분열과 나뉘고 그리고 부조화를 즐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8:1에서 기드온이 미디안에 맞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심술궂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네가 미디안에 맞서 싸우러 나아갔을 때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기드온을 날카롭게 비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오직 괴로운 마음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사탄은 이 전술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그 삶이 확고해질 때, 사탄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 동기, 마음의 소망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목

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의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언제나 감정이 상하거나, 질투심, 자존심 상할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일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대가를 치르지 않겠어 그런 사소한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수 있는 능력에 기뻐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모욕을 퍼부어도 예수님께서서는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기드온의 반응은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한다.” 라는 잠언 말씀의 훌륭한 예입니다. 삶에 무엇이 빠져있는지를 찾기보단 나의 삶이 무엇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훌륭한 알림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인정받지 못함이나 자기 상처에 집중하기보다 무언가에 내 삶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에브라임이 이것을 이해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적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용서하는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오라는 부르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진실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서로 배려하며 맞춰 걸을 것이며, 상대방의 허물을 눈감아 주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잃어버린 수백만의 영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책망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부하들은 피곤하고 굶주리고 지쳤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미디안을 추적하기 위해 숙곳과 브니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숙곳 사람들과 브니엘 사람들은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반응은 매우 논리적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15,000명의 미디안 군인이 기드온의 군대와 대치중에 있었고 기드온의 군대는 이미 300명이나 전사한 상태였습니다. “기드온을 돕기 전에 먼저 상대편 왕들이 죽었는지 확인해봅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행하신 일에 대해 먼저 흥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뻐했어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두려움 속에 살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께서 구원사역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신뢰도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의 삶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그들의 권위, 부르심, 지도자로서의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이미 이루신 일을 조롱합니다! 당신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스라엘의 적 편에 서고자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적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 기드온은 가혹하게 대답했습니다. 또한 가혹한 형벌을 정확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불평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숙곳과 브니엘 사람들은 완전히 믿음을 잃고 오히려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 싸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의무와 삶은 그분을 향한 섬김과 신뢰 그리고 감사라는 것을.